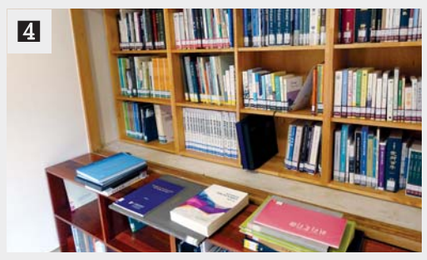
원도심 기억을 담다

도시재생 공간 탐색

(2) 제주책방·사랑방



❶ 철거 위기에 놓였던 2014년의 고씨 주택.
❷ 제주사랑방으로 변신한 옛 고씨 주택 안거리. 사진 오른쪽 밖거리는 제주책방으로 바뀌었다.
❸ 제주사랑방 내부.
❹ 제주책방은 제주 관련 행정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천에서 살아온 생애들 그 옛집에

1949년 건축된 고씨 주택
일식 건축·제주 민가 공존
철거 위기 딛고 살아남아
특화된 콘텐츠 보강 필요

6년 전, 제주시 관덕로 17길 27-1에 살던 고모씨 앞으로 제주도에서 한 통의 문서가 날아든다. 2014년 7월 15일자 전결이 이루어진 '소송(부당이득,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등) 추진 예고 통보'였다. 탐라문화광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와 영업보상을 완료하고 수차례 이주 요청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고 있다며 부득이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보전받고자 제주도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예고하는 내용이었다. 수신자는 그를 포함 그 일대 건물에 있는 12명이었다.

다행히 그 주택은 헐리지 않았다. 제주도가 탐라문화광장 부지에 있는 5개동의 매입 건물에 대해 문화시설 등으로 보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철거하지 말고 과거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알려주는 장소로 남아 있었으면 한다"던 고씨의 바람이 통했다.

이 과정에 사단법인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 등 문화단체들의 힘이 컸다.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는 제6기 도정 준비위원회에 해당 주택을 보존해야 한다는 민원서를 내는 등 적극적으로 존치 운동을 폈다. 지금은 제주도가 제주도시재생센터에 위탁 운영을 맡겨 제주책방과 제주사랑방으로 변신한 고씨 주택이다.

고씨 주택은 제주 민가의 그것처럼 안거리, 밖거리 2동으로 건축면적 159.8㎡, 연면적 159.8㎡ 규모다. 제주책방·사랑방 입구에 들어서면 1949년 건축(건축물관리대장 기준)된 근대 건축물인 고씨 주택을 보존한 배경이 안내판에 담겨있다. 도시재생센터는 지간(地間)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해 "이 주택은 기술적으로는 일식 건축을 참고해 지었지만, 기능적으로는 제주 민가의 전통적 내용을 계승하여 지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과도기적 건축물"이라고 소개했다.

제주도가 탐라문화광장 부지 건물주 등에게 소송을 예고했던 그날,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는 고씨 주택의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심의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장조사도 실시됐으나 당시 문화재 등록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오늘날 고씨 주택은 약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 6월~2017년 1월 '복원 공사'를 마친 후의 모습이다. 과거의 얼굴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2019년 4월부터 3개월에 걸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밖거리(바깥채)는 제주책방, 안거리(안채)는 제주사랑방으로 가동되고 있다.

제주책방은 제주 관련 행정자료와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꾸몄다. 10월까지 도서목록 작업을 마칠 예정인데 9월 현재 역사, 사회과학, 문학, 언어 등 2500권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 제주사랑방은 동호회, 취미 모임 등으로 대관이 가능한 공간이다. 4인이나 6인이 이용 가능한 활동실 3실을 갖췄다.

제주도시재생센터가 홍보하듯, 제주책방이 제주시 원도심에 숨은 근대건축물을 꺼내어 기억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서 수집이나 자료 수증 시 제주 건축, 원도심 등 콘텐츠의 특화가 필요해보인다. 제주사랑방엔 동문시장 사람의 인터뷰보다는 옛 고씨 주택 거주자의 육성 등 해당 공간과 관련된 자료가 전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글·사진=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공연하려면 마스크 써라?… 예술계 논란

문예회관, 제주도 공문 근거
출연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연 특성 고려 안해" 반발

서울시는 의무착용 예외조항
도 "방역위에 검토의견 낼 것"

제주도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진흥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 출연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시설 일시 운영중단 연장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확대'에 따라 공연장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는 게 그 이유다. 마스크 착용은 9월 11~10월 12일 중점 계도를 거쳐 10월 13일 이후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제주도가 지난 11일 시행한 공문에 근거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우면 공연장을 대관할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국악협회 제주도지회의 제주국악제는 20일 출연진들이 마스크를 쓰고 치렀고,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주전국장애인연극제도 배우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제주 문화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을 강화한 점은 이해되나 음악, 연극 등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무대를 열어놓고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 예술인들 사이에선 "공연을 하지 말라는 거냐"는 반응이 나온다. 연극협회제주도지회 관계자는 "한 장면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적어 거리두기가 된다"면서 "연극 공연에서 마스크를 쓰면 대사 전달이나 배우들의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가면을 쓰고 공연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공공 공연장인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무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9월 24일 '교과서 속 성악곡 이야기', 9월 29일 '우리소리&우리가곡'은 거리두기, 발열 확인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전제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온라인 실시간 공연 중계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10일자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을 통해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외조항 중에서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를 보면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업 관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가 들어있다.

이와관련 제주도문화정책과 관계자는 "공연예술 분야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되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되도록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의 방역 수칙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조만간 생활방역위원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재밋섬 매입 향방 이번엔 결정되나

추진 시 리모델링비 문제
중단 시 배상액 지급해야
내달쯤 검토위서 권고안
도의회 보고해 최종 결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중앙로 재밋섬 건물(제주시 삼도2동 108-13외 4필지, 지상 8층 지하 3층)을 매입해 조성하려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인 가칭 '한짓골제주아트플랫폼' 사업 향방이 연내 결정될 수 있을까.

문예재단은 지난 19일 재밋섬 건물 매입에 찬·반 입장을 드러내온 이들을 불러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성된 타당성검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내용 등을 토대로 10월쯤 최종방안을 도출해 이사장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사장은 이를 제주도, 제주도의회에 보고해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재밋섬 건물 매입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도의회가 문예재단 설립·육성 조례를 손질해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만일 건물 매입을 중단하면 배상액이 발생한다. 문예재단은 논란 확산 직전인 2018년 6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합쳐 10억2원을 매도인에게 지불했다. 매도인 측은 지난 7월말에도 2차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문예재단에 보냈다. 문예재단이 재밋섬파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106억7380만원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고,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20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엔 추가 비용 확보 문제가 따른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줄기차게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예정대로 추진되더라도 막대한 리모델링비를 거론하며 기존 계획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다. 문예재단은 앞서 2018년 6월 육성기금 170억2100만원 중에서 113억원을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예산으로 편성했다. 계획서상 추후 국비·도비로 마련할 리모델링 비용은 60억원에 이른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대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배영환)은 574돌 한글날을 맞아 제14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3~5분 가량의 한국어 말하기 영상을 제작해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영상을 제출하면 접수된 영상을 심사해 수상자를 발표하는 방식이다. 자유 주제로 참여하면 되는데 한국어나 한국 생활과 관련한 내용이면 더욱 좋다. 행사는 일반부와 대학생부로 나눠 열린다. 조선족이나 이 대회에서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접수 기간은 10월 9일까지다. 제주대 국어문화원 누리집(http://malgeul.jejunu.ac.kr) 등 참고. 문의 754-2712.

진선희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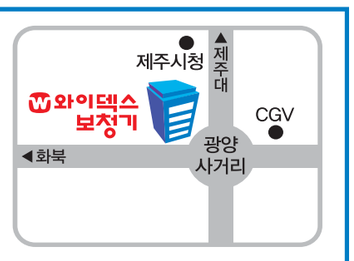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